

투쟁속보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인천일보 지부
www.incheonnojo.org

2004년 4월 6일

발행인 정찬흥 | 편집인 김진국 · 편집위원 김형태 정인숙 노형래 |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 인천시 중구 항동4가 18-2 (전화:4520-282 팩스:763-8807) |

주식 '전량 소각' 해야

50% 감자에서 투쟁방침 전환, 복귀분쇄음모박살 장기투쟁 돌입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인천일보 주식에 대해 지금까지 '50% 감자' 입장을 '전량 소각'으로 선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일보 주식이 애초 주식으로의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인데다 전 경영진의 감자거부에 따라 전격 결정된 사항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전 경영진 비리조사팀을 가동하고 인천일보 전 경영진 복귀음모 분쇄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항의방문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조는 우선 지금까지 '50% 감자'를 요구하던 입장을 '전량 소각'으로 전환해 전 경영진의 복귀음모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하수 전 사장, 장채춘 한국공영 회장을 제외한 이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회사 간부진과 편집국 데스크 등으로 이뤄진 10여명의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한국공영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인천일보 임직원의 입장을 시청, 연수구청, 한미은행, 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항의방문단의 활동을 경기도청과 화성시청 등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층 편집국을 중심으로 '비리조사팀'을 구성해 장채춘 회

장과 신 전 사장의 재임시 회계장부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걸친 비리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31일 주총때 신 전 사장과 장 회장에 동조해 대부분의 이사들이 동의하고 직원들이 간절히 염원한 '감자'에 찬물을 끼얹은 5개 건설사들에 대한 전담기자 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노조가 규정한 건설사, 개인 등 8쪽에 대한 조치도 새로운 투쟁전략으로 선정했다.

한편, 오는 6일부터는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철야농성 투쟁에 동참기로 해 노조 조합원은 물론, 전 임직원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이를 위해 조직을 지금까지 6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했다.

노조는 특히 인천지역 사회, 시민, 노동단체가 인천일보 개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에 따라 다음주 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연대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산하 단위노조들은 이미 인천일보 개혁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찬흥 위원장은 "애초 50% 감자는 개혁에 못미치는 조건이었다"며 "이에 따라 노조는 전액 소각을 요구하는 한편, 신 전 사장과 장 회장의 인천일보 복귀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장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위원회의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특히 본부장을 포함한, 각 부장 등 간부들도 투쟁위원회에 결합함에 따라 앞으로의 투쟁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사무국과 선전홍보국 외에 지원국과 대외협

력국, 조직국이 각각 추가됐고, 요일별로 철야농성을 벌이던 투쟁1~5국을 세분화시켜 7국까지로 확대했다.

기두투쟁과 석식투쟁을 벌이게 될 투쟁국은 1~3국까지는 편집본부가, 4국은 인천출판사가, 5국은 경영전략본부가, 6국은 관리본부와 마린톤 사무국이 각각 맡게 됐다. 투쟁7국은 경기본사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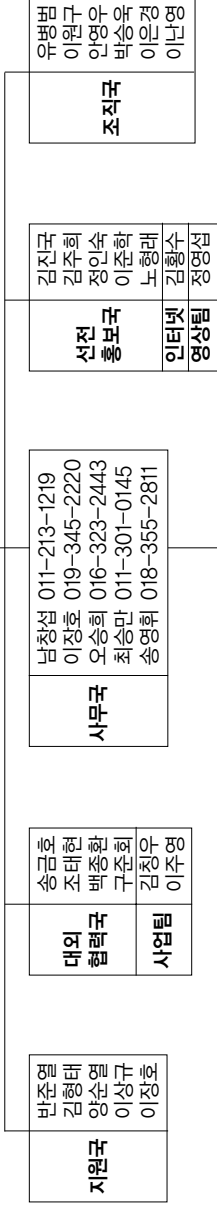
이번 투쟁위원회에는 각 본부장과 부장 등 간부들도 결합한다. 이미 각 본부장은 지난 1일부터 노조의 철야농성에 결합한 상태이며,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전 간부들도 철야·석식 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투쟁위원회는 각 투쟁국 별로 요일을 정해, 석식투쟁을 벌이게 된다. 석식투쟁은 1층 로비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하루 2~3시간 정도 진행되

며, 이 때에는 조직력 결속을 위한 문화활동과 헌신일보 정국에 대한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석식투쟁 이후에는 노조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투쟁위원회는 대시민홍보전을 위해 가두투쟁도 벌인다. 가두투쟁은 시청과 경기도청, 화성시청, 연수구청, 법원, 한국공영 등지에서 벌이며, 이 또한 투쟁국 별로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쟁위원장
정찬홍 016-308-0335
유병범 011-734-4135



투쟁 1국 (편집본부)	
국장	심동열 019-203-5464
투쟁위원	김황수 017-252-2743 곽승신 011-663-5276 황준모 011-897-9808 윤신욱 019-315-7239 조은주 017-411-7682 유승희 019-260-7403 오승희 016-323-2443 김정훈 011-9965-0875 김하나 019-293-1183 박은경 016-377-6962 이미희 032-613-6847 윤영석 017-726-1525 김형태 011-9719-5310 안중희 016-439-2064 정영선 011-9163-3449

투쟁 2국 (편집본부)	
국장	이은경 018-351-2140
투쟁위원	김창우 011-9747-2425 조태현 018-213-8095 김기준 017-276-7626 박정환 017-286-3414 김주희 016-232-0986 노형래 016-781-4534 이주영 011-9743-6752 안영우 011-345-9579 김성준 011-9448-1614

투쟁 3국 (편집본부)	
국장	박주성 011-796-8078
투쟁위원	박준철 011-9019-7156 송금호 011-241-1109 백종환 017-366-8459 양순열 017-323-2760 정지훈 016-839-7000 구준희 016-321-9726 백범진 011-788-1683 이현구 016-224-1519 이원구 016-771-9550 김진국 019-9410-2311

투쟁 4국 (인천출판사)	
국장	이장호 019-345-2220
투쟁위원	공진숙 016-325-2167 함중현 011-9863-6611 문희수 017-318-7298 정인숙 011-9371-6973 최진 016-9593-5070 유수현 011-9864-6809 이재실 016-328-5982 반준열 016-309-2240

투쟁 5국 (경영전략본부)	
국장	이준학 016-223-7801
투쟁위원	이현우 011-311-0205 박승욱 011-711-6534 김동주 016-344-2348 문종권 011-767-1175 박태수 011-710-1919 정준석 017-561-3199 이진아 016-771-9486 하정욱 017-251-2620 유정미 016-743-1244

투쟁 6국 (관리·마린톤)	
국장	임효준 011-9725-2323
투쟁위원	이상규 016-777-2488 홍경표 017-258-5229 남윤석 016-262-0959 진계숙 017-256-3608 최두연 016-260-8464 송대순 011-9028-1519 천현봉 016-772-5463 윤태병 016-751-1095 권형철 016-300-3306 최승만 011-301-0145 이난영 016-334-5486 강정일 011-281-7509 최영진 011-9269-7739 신경희 016-773-3992

투쟁 7국 (경기본사)	
국장	홍성수 017-246-1895
투쟁위원	송명희 017-544-0437 변승희 010-3936-3698 구대서 018-285-7828 안병진 016-306-7440 노경신 018-288-5334 김기중 011-9973-0123 김종성 016-323-2855 송영규 011-9099-3908